

자연장지 '용강별숲공원' 본격 가동

한울누리공원 만장에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로 전환 4만㎡ 규모 조성 완료... 향후 15~20년 사용 가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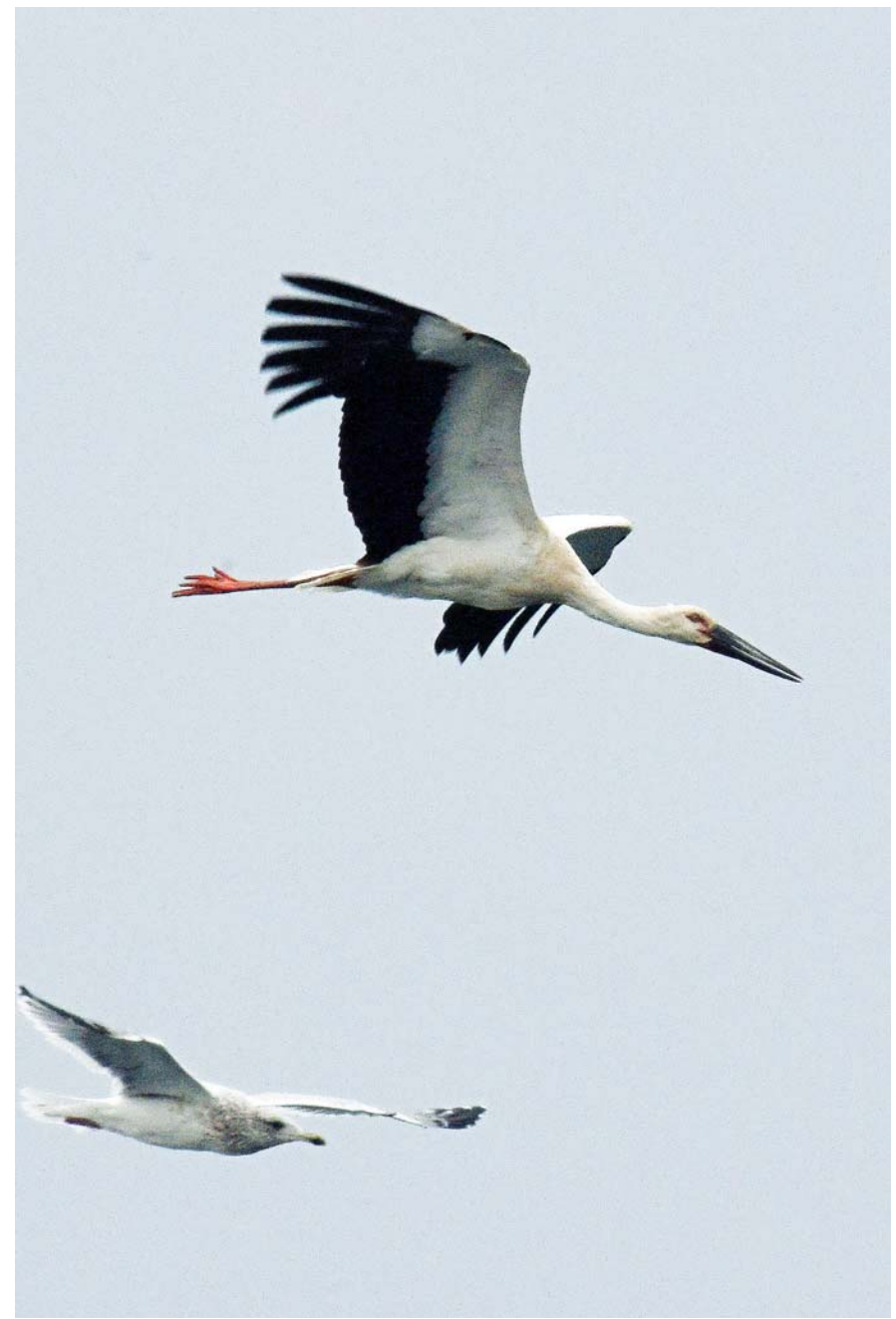
제주시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공사가 마무리돼 '용강별숲공원'이란 이름으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2012년 4월 개장한 자연장지인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포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화장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한울누리공원에 1년 동안 2500여 기가

안장되면서 일찍이 만장에 대비한 추가 시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동부공설묘지 일부를 자연장지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했다. 조성 규모는 자연장지 4만㎡, 추모관 400㎡, 주차장 8274㎡로 국비 28억원 을 포함 총 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당초 지난 5월 준공 예정이었으

나 레미콘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면 개장 시기가 늦춰졌다. 준공이 미뤄짐에 따라 제주시는 한울누리공원 만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는 자연장지 공사가 마무리된 동부공설묘지 일부 구역에 한해 부분 개장에 나섰다. 일부 개장 이후 11월 말 현재 968기가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향후 15~20년간 용강별숲공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총 안장 규모는 3만구로 예상된다.

사용료는 제주도민의 경우 잔디형·수목형은 10만원, 정원형은 3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40년으로 안장 후 유골 반환은 불가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권한은 제주도로 귀속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울누리공원 만장에 따라 동부공설묘지 전체를 자연장지로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진행된 사업"이라며 "현재 공설묘지 내 30%가 자연장지로 바뀌었고 향후 필요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halla.com



제주 찾은 황새의 자태.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황새가 1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관찰됐다.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이며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희만기자

도, 유아동네숲터 확대

제주도는 제주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놀이시설인 유아동네 숲터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유아동네숲터는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 가 자유롭게 자연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0개소의 유아동네숲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구좌읍 평대리 비자숲힐링센터와 표선면 가시리 사려니숲길 내에 ▷비가림시설 파고라 ▷흔들다리 ▷흔들그네 ▷징검다리 등 자연 놀이시설을 조성했다. 내년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제주해역 어선사고 13% 줄었다

올해 250척 발생... 총 해양사고도 385척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제주해역의 사고 예방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며 올해 제주지역 해양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총 385척으로 최근 5년간 418.4척에 비해 약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어선 사고는 총 250척에서 발생해 최근 5년 평균 286.4척에 비해 12.7% 줄었다.

제주 해역 해양사고는 2017년 413척, 2018년 399척, 2019년 439척, 2020년 440척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다 지난해 401척으로 감소세로 돌

아서 올해 11월까지 385척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충돌, 좌초, 침수, 침몰, 전복, 화재 등 6대 해양사고는 올해 총 105척에서 발생해 5년 평균 대비 11.4% 감소하며 안전한 제주 바다 만들기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제주해경청은 예방 정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해양사고를 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의 기상 이 나빠지기 전 안전 해역과 위험 해역을 분석해 항해나 조업에 나선 선박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피항 유도 와 함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진행해 화재와 기관 고장 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또 지역 수협, 선주 협회, 어촌계 등 해양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와 무리한 조업 자제 등 협조를 당부하고 선박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해경은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동절기 화재 등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도영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도청-노조,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금지'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무시간외 카오톡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로 공무원노조와 합의했다.

제주자치도는 교섭대표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 교섭참여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1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06년 첫 번째, 2017년 두 번째 체결에 이어 세 번째이다.

제주자치도와 공무원노조는 근무조건과 관련 근무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 유연근무제 적극 실시, 5월 중 특별휴가 실시 등에 합의했다. 또 조합

활동과 관련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범위를 총회, 상급단체 회의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임용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인사원칙과 가점요소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공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최소한 채용하고 행정시와의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위영석기자

'운영대행사 변경'으로 탐나는전 앱 재가입 필요

2023.1.5. 09시 오픈 예정

2023년 부터 탐나는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신규 앱 다운로드
- 회원 가입
- 카드 등록 필요

탐나는전 신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스토어에서

제주 탐나는전 검색 다운로드

기존 앱은 2022.12.31. 24시 이후 폐쇄

기존 카드 잔액, 이용내역 등 고객정보는 안전하게 전달, 계속 사용 가능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 (최대 10%)

- 연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시 현장 할인(5~10%)
- 10% 인센티브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10% 할인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전통시장 상점이 착한가격업소 사회적 경제 기업
- 5% 인센티브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5% 할인
- 할인대상 가맹점은 탐나는전 앱 '할인가맹점'에서 확인 가능
- 개인별 1회 5만 원 이하, 월 20만 원 이하의 한도가 있음
- 탐나는전 카드만 해당(지류 및 QR결제 제외)

문의처 탐나는전 고객센터 1600-3971 (평일 09:00 ~ 18:00)